

Sleeter와 Grant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에 따른 다문화교육 정책 분석

-부산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김현영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다문화교육 정책
 - 2.2. Sleeter & Grant의 다문화교육 접근법
 - 2.3.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 3.1. 분석 대상
 - 3.2. 분석 방법
4. 연구 결과
 - 4.1. 최근 3년간 부산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
 - 4.2. 다문화교육 접근법에 따른 분석
 - 4.3. 다문화교육 접근법에 따른 정책 비율
5.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Sleeter와 Grant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에 따라 분석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2023년 부산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정

책을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대부분은 특수학생 및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교수와 대인관계 접근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일집단연구, 다문화적 교육, 다문화정의교육 접근법에 따른 교육 정책도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Sleeter와 Grant의 다문화사회정의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평등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정의교육 접근법에서 교육 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주제어]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정책, 다문화교육 접근법

1. 서론

국가 간 교류 확대로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출신 국가는 2023년 기준 192개 국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부터 5명 이하로 체류하는 나미비아, 산마리노 등 생소한 국가 출신까지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하다(법무부, 2023).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저출산 기조 확산에 따른 다문화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6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비율도 평균 0.3%씩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2016년도에는 99,186명으로 1.68%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168,645명으로 3.19%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23). 이러한 수치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학생 비중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부산시 전체 학생은 202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6,771명으로 전체 학생인 343,474명 대비 1.9%였다. 2022년 2.08%, 2023년에는 2.2%인 7,383명으로 해마다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교육통계서비스 2023년의 자료 인용). 이에 교육부는 2006년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지원계획을 시작으로 매년 다문화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시교육청(이하 부산시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다문화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들은 여전히 교육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학생과 고등교육 진출률 격차는 2018년 기준 18%에서 2021년 31%로 격차가 더 커졌다(여성가족부, 2023).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 비율이 2.3%로 비다문화 학생 1.1%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3).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력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 학생의 수업 태도, 독서 시간, 부모의 교육지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것이다(윤민중, 강충서, 2019). 낮은 학업성취도와 교육격차의 누적은 사회계층 격차로 이어져 새로운 한국사회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와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다문화교육 정책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진영 외(2014)는 2011~2012년도의 교육부 다문화정책을 분석하고 단위 학교에서 실행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문화교육 정책이 보수적 접근에 집중되어 비판적 접근이 거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보수적 또는 비판적, 이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최영준(2018)은 교육부와 입법부의 자료를 내용분석하여 다문화교육 정책의 변화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하여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이념이나 사상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책적인 기조에 대한 흐름은 진단하였으나, 교육 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내용은 분석하지 않았다. 이상진 외(2022)는 2006~2022년까지의 교육부 정책을 Sleeter와 Grant 다문화교육 접근법에 비추어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논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교육 정책이 특수학생 및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에 대한 교수 접근법과 대인관계 접근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문화사회 정의교육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육부의 정책만 분석하여 교육부 정책이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집단 학생들의 교육평등을 실현하

고 통합적인 국가 시민 문화 내에서 비판적이고 자신 성찰을 하는 시민으로서 참여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정의한다(Banks, 2014). 이러한 정의는 다문화교육이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Sleeter와 Grant(2009)는 이러한 다문화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다문화 교육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적 상황에서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 계층, 장애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설명했다. 다양한 집단에 대해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 교육 접근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이 다섯 가지 다문화교육 접근방법은 서로 다른 이념과 배경을 갖고 있으며,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하면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Sleeter와 Grant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을 토대로 다문화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진단하면 해당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보완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부의 정책보다 구체적이고 학교 현장에 적용성이 높은 시도 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Sleeter와 Grant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부산 시교육청의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진단 및 다문화교육 정책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교육 정책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지만, Banks(2014)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이 성별, 사회계층, 소수 민족적·인종적·문화적 특성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

히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이 각자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 정책은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모든 학생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과 실행 방안이다.

부산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교육환경 조성 및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기회 보장(부산광역시교육청, 2023)으로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 및 적응력을 높이고, 전체 학생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주요 추진 과제는 체계적·종합적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교육 참여 확대,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이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23).

2.2. Sleeter와 Grant의 다문화교육 접근법

Sleeter와 Grant의 다문화교육 접근법 다섯 가지 유형은 다문화교육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한다. 다문화교육 접근법은 미국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발달했다. 1960년대 학교 간의 차별폐지와 특수학생과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학교 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것이 ‘특수학생과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에 대한 접근’으로 발전한다. 한편 학교에서의 인간관계가 사랑과 존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 중심을 두어 ‘대인관계 접근’으로 발전한다. ‘단일집단연구’는 민족, 여성 등의 특정한 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주류사회에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 발달한다. 1970년대 ‘다문화적교육’ 접근법은 사회계층과 연결되어 학교가 인종, 언어, 성, 장애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동등한 교육 실현을 추구하고 발전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정의교육’은 다문화교육을 사회계층의 개념과 연결한 것이다. 사회적 역할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탐색하고, 인종차별, 사회

계층적 차별 등의 사회문제를 다루고, 사회 구조적 평등을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다섯 가지 다문화교육 접근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생과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교수 접근법은 소수집단을 주류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교육은 특수학생과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적응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다.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 및 학교적응을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수업, 이중언어 교사를 통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대인관계 접근법은 주류사회에서 일치와 관용, 수용성을 높이는 등 주로 정의적인 영역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 간에 차이를 존중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갈등 해결을 돕고,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하고 고정관념을 감소시킨다. 즉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다. 셋째, 단일집단연구 접근법은 주류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해당 집단 학생들을 위해 불평등하고 억압된 사회적 환경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차별의 영향에 관한 교육을 하거나 사회적 쟁점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이다. 넷째, 다문화적교육 접근법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집단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문화적 다원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모든 학생을 위해 학교 전체와 교육과정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학생을 주류사회로 통합하면서도 이들을 위해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사회정의교육 접근법은 학생들이 사회 구조적 평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단일집단연구에서는 해당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접근법은 인종, 계층, 성을 모두 연계한 구성이다. 다문화적교육 접근법과 같이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와 교실에서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정의교육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회구조와 질서가 불평등하다고 보고 이를 개혁하고자 적극적인 실천을 고양 시킨다는 점에서 다문화적교육 접근법과 다르다.

2.3. 선행연구 검토

교육부의 다문화정책을 분석하여 그 방향성을 고찰한 선행연구가 있다. 최진영 외(2014)는 Sleeter와 Grant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을 활용하여 다문화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단위 학교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단위 학교의 정책실행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교육 정책이 특수학생 및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에 대한 교수와 대인관계 접근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수적 접근에 집중되어 있고 비판적 다문화교육 접근은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단위 학교에서 실행하는 다문화교육은 보수적 접근으로 표면적인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보았다. 최영준(2018)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하여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교육 정책의 보완, 거점학교 마련 등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교육의 개선 방안으로 다문화교육을 위한 법체계 마련과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전국민적 다문화교육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의 흐름과 방향성을 분석하고, 교육부와 입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진 외(2022)는 2006~2022년까지 17년간의 교육부 정책을 Sleeter와 Grant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에 비추어 다문화교육 정책 방향성을 논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교육 정책이 특수학생 및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에 대한 교수와 대인관계 접근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문화사회정의교육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종적, 횡적 연구를 통해 교육부의 다문화정책을 고찰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최진영 외의 연구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Sleeter와 Grant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에 따른 분석보다는 보수적 또는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최영준(2018)은 다문화교육 정책을 정책 기조와 관점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없다. 이상진 외(2022)의 연구는 교육부의 정책만 분석하여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정책이 어떻게 구체화 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지 않았다.

시도 교육청의 교육 정책은 교육부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고, 지역적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고려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교육부의 정책보다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이다. 따라서 교육 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정책보다 시도 교육청의 차원에서 교육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도 교육청 차원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확인하고, Sleeter와 Grant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으로 분석하여 다문화교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2021~2023년)의 부산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의 지속성 및 변화를 확인하였다. 부산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의 ‘2023학년도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계획’을 분석하였다. 교육지원계획에는 부산의 다문화 학생 현황과 다문화교육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 기대효과 등의 내용이 있다. 부산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의 ‘2023년 다문화 교육지원계획’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는 다문화교육에 관한 상위의 목표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부산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의 위계와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맥락 확인을 통해 추진과제와 하위 프로그램들의 목표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를 다문화교육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자료 및 출처는 <표 1>과 같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다문화교육 접근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내용분석은 정책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단위 프로그램을 분류체계에 따라서 유목화하여 어떤 접근법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Sleeter와 Grant(2009)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에 따른 다섯 가지 분류 기준을 대상, 목표, 교육과정, 교육환경, 태도 등에 따라 구체화하여 <표2>와 같이 구성하였다.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정책의 하위 목표와 내용이 달라 교육정책 대상에 따라 분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학생, 다문화 학생 학부모, 전체 학생, 전체 학부모, 교원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시 Sleeter와 Grant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년간 다문화 학생 지도 경험이 있는 현장교사와 상호점검하였다. 그 결과는 <표4>와 같이 제시하고, 다문화교육 접근법에 따른 건수와 비율을 확인하여 <표5>에 제시하였다.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대부분 같고 일부의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으나 정책상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2. 다문화교육 접근법에 따른 분석

최근 3년간의 정책과 주요 하위 프로그램들은 일관성을 유지하므로 3개년의 정책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2023학년도의 정책을 중심으로 Sleeter와 Grant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에 따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4>로 나타내었다.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면,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은 원스톱 지원서비스,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한국어 교실, 다문화언어강사 초기지원 프로그램, 교사·대학생을 통한 맞춤형 멘토링, 수학역량강화 온라인컨텐츠 개발이 있다. 원스톱 지원서비스는 다문화 학생의 입학, 편입학, 학적 생성, 학교 배치 등 공교육 진입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력심의위원회는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 학생 및 주민의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하고 배치한다. 이는 모두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공교육 진입을 목표로 한다. 한국학교 적응을 위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특수학생과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교수 접근방법이다. 한국어 학급(교실)은 한국어 활용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KSL)에 따라 개별화 교육을 하고, 예체능 등 통합교육이 가능한 교과는 일반학급(원적)에서 교육하는 방법이다. 운영 형태는 학교형, 센터형, 위탁형, 전일제, 자율형이 있다. 한국어 학급은 보충반의 형태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원적 학급인 한국학교에 대한 적응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학생과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교수 접근방법으로 분류된다. 이는 주류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으로 일시적 보충반 형태로 구성되어 모국어를 사용하더라도 단일집단연구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문화언어강사 초기 지원 프로그램은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다. 다문화언어강사가 정규수업 시간 내 교육 활동의 통·번역 보조교사로서 활동하거나, 방과 후에 모국어로 학생의 정서적 지지 및 학부모 상담을 지원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주류 문화로 삼아 이를 효과적으로 교수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수업을 구성한다. 모국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국어 학습을 목표로 하며, 부족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가르친다는 점에서 특수학생과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에 대한 교수에 해당한다. 대학생 멘토링과 교사 멘토링은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및 정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다문화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학습지도, 심리상담, 한국문화 체험 등을 실시한다. 한국의 제도과 문화 내에 있는 인지적 기술, 정보, 언어, 가치를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특수학생과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에 대한 교수이다. 수학 역량강화 온라인 콘텐츠는 초등 3학년 수준의 수와 연산, 도형, 측정 영역의 기본 개념을 설명, 문제풀이 등의 기초수학 학습 콘텐츠를 베트남어, 중국어 등의 모국어로 지원한다. 학교 교육과정 내 결핍된 학습을 보충하고 학습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므로 특수학생과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에 대한 교수이다.

다꿈 멘토링과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단일집단연구 접근법에 해당한다. 다꿈 멘토링은 중·고등 다문화 학생과 모국어 유학생 또는 진로·진학 관련 전공 대학생을 1:1로 연결하여

멘토링 한다. 이중언어 말하기대회의 목표는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하고 모국어에 대한 자긍심 고취하는 것이다. 위 프로그램들은 다문화 학생의 모국어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고 모국의 유학생을 멘토로 하므로 이주배경 학생들의 강점을 살린 모델링이 가능하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교수할 수 있으며 모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증가시키고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목표, 교육환경, 교육과정, 태도 면에서 단일집단연구 접근법으로 분류된다.

다문화 학생의 부모 대상 프로그램은 다봄 통번역 서비스, 입학설명회, 다(多)톡(Talk) 온라인 실시간 상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징검다리 과정이 있다. 다봄 통번역 서비스는 연중 수시로 가정으로 안내되는 학부모 알림 자료인 가정통신문, 성적표 등을 12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입학설명회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관련 번역자료 제공과 유치원·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중학교 입학설명회가 있다. 징검다리 과정은 초등학교 입학 준비 교육으로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한다. 위 프로그램은 모두 Sleeter와 Grant의 특수학생 및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에 대한 교수 접근법에 해당한다. 이는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위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지원하며 학부모에게 부족한 한국의 교육정보를 보충하고 다문화 학생의 한국 학교교육 적응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감수성 교실, 다문화 어울림 문화예술교육, 다문화·탈북 이해교육 동아리, 세계언어교실이 있다.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 이해교육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연간 2시간 이상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문화이해, 협력 등의 요소를 교육 내용으로 하며,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의 증진과 고정관념의 감소에 교육목표가 있다. 이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합의 정서 및 태도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대인관계 접근법이다. 다문화 감수성 교실은 유·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거나, 초·중학교 방문형으로

운영한다. 여러 나라의 생활 및 문화에 대한 체험과 경험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한다. 다문화 어울림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교육을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을 통합하여 실시한다. 학생 오케스트라 또는 사물놀이 국악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간의 교류와 화합을 지원하고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세계언어교실은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러시아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 학생들 간의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하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인관계 접근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 다문화 정책연구학교 운영,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운영은 다문화적교육 접근법으로 분류된다. 다문화 정책연구학교는 다문화교육 HUB구축을 통한 맞춤형 학력지원 동행 모델 개발연구, 다문화 학생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한다. 다문화 정책연구학교는 다문화 학생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적교육 접근법에 해당한다. 다문화 교육진흥위원회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 및 다문화교육에 대한 계획, 운영, 교육시책을 심의한다.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수렴과 심의는 다문화적교육 접근법에 해당한다. 다문화적교육 접근법은 대인관계 접근법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태도 함양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대인관계 접근법과 차이가 있다(Sleeter & Grant, 2008/2009; 최진영 외, 2014).

전체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및 토요일 가족 상호문화 아카데미가 있다.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교육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간 20회 내외로 운영한다. 토요일 가족 상호문화 아카데미는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으로 인형 제작, 영화 체험, 다양한 나라의 문화 체험 등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문화적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대인관계 접근법에

해당한다.

교원 대상 다문화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다문화교육 직무연수(기본, 심화)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특성과 학교 교육에 적응, 기초학력신장 방안,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으므로 특수학생 및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에 대한 교수 접근법으로 분류하였다. 직무연수 중 상담과정과 관리자과정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비다문화 학생과의 교류 및 전체 학생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대인관계 접근법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 접근법에 대한 분류는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공통점 있고 차이점도 있다. 교원직무연수는 공통적으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주류사회적응을 돕는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학생 및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에 대한 교수 접근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담과정과 관리자과정은 다문화 학생과 전체 학생을 교류하게 하며 학교 전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도 목표로 하고 있어 대인관계 접근법으로 분류된다. 다문화·탈북 이해 교육 연구회는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를 한다. 상호문화교육 우수자료 제공은 온라인 및 부산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해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전체 교육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대인관계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 지원단은 한국어 교실 운영 컨설팅, 다문화교육 지원자료 개발, 다문화교육 사업 운영 모니터링,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컨설팅 등을 한다. 이러한 활동의 목표는 학교 교육의 기회균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및 다문화 학생에 대한 균등한 지원이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다문화 친화적 학습환경 등 학교 교육을 전반적으로 분석, 평가하므로 Sleeter와 Grant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4.3. 다문화교육 접근법에 따른 정책 비율

다문화교육 접근법에 따른 정책 건수와 비율은 <표 5>과 같다. 이를

통해 다문화교육 정책은 28건 중 14건이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학생 및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에 대한 접근법과 대인관계 접근법이 각각 42.5%, 35%를 차지한다. 특수학생 및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에 대한 교수 접근법은 한국을 주류사회로 인정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목표로 결핍된 한국어나 기초학습을 교육한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하는 대인관계 접근법 역시 궁극적으로 한국 주류사회에서 일치와 수용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단일집단연구, 다문화적교육, 다문화사회정의교육 접근법은 각각 7%, 10.5%, 0%로 앞의 두 접근법에 비해 적은 비율이거나 없다. 이 세 가지 접근법은 주류사회가 한국이라는 정의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해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환경에 대한 변화와 법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앞의 두 가지 접근법에 비해 다문화 학생에게 시급하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에 대한 접근이 아니며 학교 차원에서 실시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 변화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집단 학생들의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비판적이고 자신 성찰하는 시민으로서 참여하도록 교육하는 것(Banks, 2014)인 만큼 단일집단연구, 다문화적교육, 다문화사회정의교육 접근도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분석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지원 정책 문건을 분석하여 3년간의 정책의 연속성 및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Sleeter와 Grant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은 특수학생 및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교수와 대인관계 접근법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정책이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에 집중되어 있고(최진영 외2014), 대부분의 교육이 다문화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수준(이상진 외, 2022)이라는 선행연구와 일관된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학교와 교육체계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교육이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켜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하고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Banks, 2014)이라는 점에서, 다문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교육 평등과 사회정의를 위한 다문화교육 접근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단일집단연구, 다문화적교육, 다문화정의교육 접근법에 따른 교육정책도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과 관련되어 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는 사회구성원으로 필요한 역할

을 학습하는 장으로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은 건강하고 조화로운 미래 공동체를 만드는 바탕이 된다. 그러나 전체 학생과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감수성 교실, 세계언어교실,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토요일가족 상호문화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은 전체 대상자 중 일부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다문화교육(Sleeter & Grant, 2009)의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사려 된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다문화교육을 실행하는 방안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수업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가들의 독서 목록과 문학 작품을 제시하는 것, 과학에서 다른 문화에서 과학의 발전사를 알아보는 것,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넓히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Sleeter와 Grant의 다문화사회정의교육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정의교육의 목표는 사회구조의 평등과 문화적 다원주의를 고양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해 사회 구조적 평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학교 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즉,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Banks, 2014)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이야기나 설명하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비판적인 사고와 사회적 의사결정을 훈련하여 개발된다(Dewey, 1983; Sleeter & Grant, 2009). 이는 사회문제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논쟁하며, 권력을 획득하고 권력을 연습하거나 학교에서 비판적인 사고와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훈련함으로써 개발된다. 학생들이 학교 규모의 선거를 하고 선거위원회 구성, 선거공약 포스터 제작, 캠페인 활동 등을 하는 것, 학교 정화 운동 캠페인을 구성하고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것, 학교가 지역 공동체 사회 활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Sleeter & Grant, 2009). 지난 3년간 실행된 부산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다문화사회정의교육 접근법

에 따른 정책은 없었다. 이러한 정책은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평등교육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것에서 기인하는 교육 불평등과 사회정의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 다문화사회정의교육 접근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어렵고,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한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자신감이 저하 될 수 있다. 모든 학생에게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문화적 이해와 대인관계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기 어렵다. 이는 결국 사회적인 이해와 상호존중의 결핍으로 사회적 분열과 문화적 충돌을 야기하고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평등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정의교육 접근법에서 교육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성이 높은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단위 프로그램을 Sleeter와 Grant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으로 분석하여 방향성을 진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분석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다문화교육 정책문서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다문화교육 접근법을 확인해 본다면, 다문화교육 개선에 더 효과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Five approaches to race, class and gender*

Abstract

Analysi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through Sleeter & Grant's Multicultural Education Approach - Focusing o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of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

Kim, hyeun-young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MCOE) from 2021 to 2023 according to Sleeter and Grant's multicultural education approaches in order to diagnose the policy direction and derive implications. To this end,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of the Busan MCOE for the 2021~2023 academic years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jority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of the Busan MOCE are dominated by the 'exceptional and culturally different students approach' and the 'human relations approach'. Therefore, educational policies based on 'single-group studies',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social justice education approaches' should also be balanced and considered. Second,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programs targeting all students. Thir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Sleeter & Grant's approach to multicultural societal justice education. In order to address the educational issues faced by multicultural students and ensure equitable education for all students, it is required that educational policies should be based on the approach of multicultural societal justice education.

[Key word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approach

투고일 2024. 02. 13 / 심사일 2024. 03. 09 / 게재확정일 2024. 03. 14